

주례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오 석 홍

<이 글은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주례사의 형식으로 적어본 것이다. 이 글은 혼인을 허투루 생각하는 시속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혼인은 인간승리의 기반이며 도약대입니다. 혼인은 세상살이의 발진기지(發進基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은 인류의 대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혼인의 언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의 경사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혼인식을 주재하는 저는 축복과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인은 한 쌍의 남녀가 만나 영원한 인연을 맺는 일입니다. 혼인으로 맺은 인연은 죽음으로도 갈라놓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치를 오늘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는 잘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혼인의 영원한 인연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이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혼인하는 남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듭니다. 부부의 관계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자고로 일심동체라 불러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지극히 가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은 당연시되고 잠재의식화합니다. 전의식적(前意識的)인 믿음은 혼인문화의 근원적 전제입니다. 부부는 한 몸처럼 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서로의 존재를 시시각각으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있는지 없는지 잊고 살만큼 가깝다는 말의 뜻을 제대로 풀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혼인생활은 깨끗한 물에 비유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생활은 독한 술이나 향이 짙은 음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만 물은 인간생명의 근원입니다. 혼인생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은 또한 부부생활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흐르는 물은 순리를 가르칩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려하며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융화에 능합니다. 흙결을 정화하는 데도 능합니다. 이 세상의 때를 잘 씻어줍니다. 물의 이러한 품성들을 부부생활에서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혼인은 부모, 조상, 형제자매, 자녀, 후손을 아우르는 인연의 연결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연결망을 존중하고 잘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장인과 장모에게 법(法)에 의한 아들이 되고, 시부모에게 법에 의한 딸이 됩니다. 법에 의한 아들과 딸이란 약속에 의한 아들과 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신랑 신부는 장차 약속에 의한 관계가 혈연에 의한 관계보다 더 진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조상에 대한 책임은 무한정하다는 정언명령(定言命令)을 오늘의 신랑 신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와 후손에 대한 책임 또한 끝이 없다는 규범을 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대와 후대에 대한 책임을 말할 때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무형적인 책임입니다. 물질적인 편익으로 이를 대체하려하면 안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어느 경우에도 책임감 있는 행동은 아름답고 무책임한 것은 추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보람 있는 삶을 종신토록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일에서 찾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은퇴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선택한 일에서 생애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도정에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